



〈자격시험 소개〉 컬러리스트 기사 · 산업기사

개성 있는 색채 기획으로 인쇄 · 출판물의 상품성 극대화

색채는 제품의 이미지와 부가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혹자는 색 자체가 곧 디자인이라 경쟁력 확보의 첫 걸음이라고도 말한다. 잉크를 사용하는 인쇄 역시 체계적인 색채관리가 필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에는 색채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전문가 자격시험이 실시되고, 응시인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컬러리스트 기사 · 산업기사가 그것이다.

색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활동 가능

컬러리스트는 색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색채 전문가로 컬러코디네이터라고도 부른다. 기업, 전문조직 및 개인적 차원에서 색채관련 상품기획, 소비자 조사, 색채규정 검토 및 적용, 색채 디자인, 색채 관리 등 색채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색채 조사 및 분석, 색채 계획, 색채 디자인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즉 색채 연출을 통해 이미지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컬러리스트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섬유 · 패션 분야에서였지만 지금은 인쇄, 출판, 그래픽 영상 등과 같이 상품의 색상을 중요시하고 컬러로 이미지 작업을 하는 모든 분야로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색채의 활용성과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오래전부터 컬러리스트 자격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차원에서 색채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컬러리스트 자격증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관하에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자격시험이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인쇄 · 출판 관련 자격증에 비해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응시하려면 일정 요건 갖춰야

컬러리스트 자격증은 크게 산업기사(컬러리스트 2급)와 기사(컬러리스트 1급)으로 나뉜다.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전자출판기능사나 인쇄기능사와는 달리 컬러리스트 자격 시험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응시가 가능한 것이 특징. 산업기사의 경우 2년제 대학, 기사의 경우 4년제 이상 학력소지자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한국색교육원(www.ilovecolor.co.kr)이나 한국 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컬러리스트 검정방법은 산업기사, 기사 모두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필기

(2007년 정기 기사 · 산업기사 시험일정)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발표	실기 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발표
제1회	2.2~2.8	3.4	3.16	3.19~3.22	4.21~5.4	6.4
제3회	7.6~7.12	8.5	8.17	8.20~8.23	10.6~10.19	11.19

〈컬러리스트의 활동분야〉

자료:한국색채교육원

구분	활동
그래픽컬러 (GRAPHIC COLOR)	CI, BI 관련 컬러계획 및 컬러디자인(그래픽디자인회사) 팬시용품 및 디자인용품 컬러디자인(디자인용품관련회사, 연구소) 편집, 인쇄, 출판 관련 컬러디자인(출판영상부서, 잡지사, 인쇄사, 디자인부서) TV, 그래픽 광고 컬러디자인(광고기획사, 잡지사, 방송사, 기업홍보부서)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및 멀티미디어 관련 컬러계획 및 컬러디자인 영상 및 사진 관련 컬러디자인(영화사, 사진소, 기획사)
디지털컬러 (DIGITAL COLOR)	웹컬러 디자인 및 사이트 색보정(인터넷관련 디자인, 홈쇼핑, 상품기획부서) 영화, 영상을 디지털 색보정, 색채관리(방송사, 영상회사 및 디지털 색채부서) 측색기, 카메라, 복사기, 영상 광학기기 등 컬러관련 기계 개발
컬러마케팅 (COLOR MARKETING)	기업관련 글로벌 컬러마케팅(기업 마케팅부서 및 광고 홍보부서) 각종 제품관련 컬러마케팅
컬러교육 및 연구 (COLOR EDUCATION)	컬러관련 교육 및 연구(대학 및 연구소, 교육원) 컬러관련 유행색 조사 및 리서치(기업 마케팅부서, 리서치회사)

자료:한국색채교육원

시험 과목을 살펴보면 기사의 경우 색채심리마케팅, 색채디자인, 색채관리, 색채지각론, 색채체계론이 총 5개 과목이며, 산업기사의 경우 색채심리, 색채디자인, 색채관리, 색채지각의 이해, 색채체계의 이해의 총 5개 과목을 실시한다. 1,2급 모두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과목당 20문항이 출제되며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필기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다시 실기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데 산업기사는 5시간, 기사는 6시간동안 치러진다. 주로 제시된 색표를 보고 색상, 명도, 채도의 변화 속성을 파악하거나, 제시된 색의 색명 알아내기, 색채계획 의도 설정, 색채 계획서 작성 등과 같은 능력을 평가받는다. 실기시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체계적 색채연구 활발

컬러리스트는 그동안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이나 미술관련학과에서 색채학을 전공한 사람인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문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컬러리스트의 활동영역은 광범위하지만 색채전문성 한가지만으로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주로 다른 전문성과 결부되어 해당분야

직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색채 관련 교육 및 산업은 기타 여러 국가에 비해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선진국에서는 색채의 중요성을 인식해 범국가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색채연구를 오래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미국, 유럽 지역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쳐 스타일리스트와 별개로 색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활용하는 컬러코디네이터가 일반화 되어 있으며, 일본은 이미 1927년에 정부 주도하에 색채연구소가 만들어졌을 정도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색채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색채 전문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2006년부터는 도쿄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컬러 코디네이터 검정시험이 연간 2차례씩 한국어로도 시행되는 등 고급 실무 능력을 갖춘 컬러코디네이터들이 보다 많이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색채는 시각적 경험중에서도 감성에 대한 직접적 호소력이 크다. 동시에 각종 디자인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비주얼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시대, 컬러리스트가 주목받는 이유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